



“사천 바다케이블카” 한려해상국립공원 비경을 품다

2018년 4월에 개통한 사천바다케이블카(이사장 박태정)는 경남 사천의 랜드마크를 넘어 현재는 남해안의 대표 관광명소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개통 2년여만에 누적 탑승객 170만여명을 달성하면서 얼어 붙어있던 사천시 지역경제에 큰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월부터 케이블카 방문객이 약간 주춤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5월 초부터 다시 방문객이 늘어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개통 당시부터 국내 최초 바다, 섬, 산을 잇는 총 길이 2.43km 코스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케이블카로 잘 알려져 있다.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입소문 나기 시작하면서 '2018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과 2018년 12월에는 케이블카 매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9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2020 제14회 고객 감동경영' 공공·행정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으며 공익성과 수익성까지 두루 갖춘 남해안 대표 관광시설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사천바다케이블카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개통 이후부터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케이블카 야간개장을 준비 중이다. 케이블카 차안 LED 조명을 비롯해 정류장 벽면 빔프로젝터와 길바닥 레이저 조명, 케이블카 주변의 해안도로 등 아름다운 불빛으로 물든 사천의 밤바다를 관광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박태정 이사장은 “케이블카 개통 이후 코로나19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와중에도 사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케이블카 안전 운영을 제일로 꼽으며 달려왔다”며 “앞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가 사천과 남해안을 넘어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천바다케이블카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마음을 비우니 세상이 보인다

코 로 나 블 루 극 복 여 행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국내최초 바다와 섬, 그리고 산을 잇는 사천바다케이블카에서
마음의 '심포' 찍는 힐링여행하고 가세요.



당신이 꿈꾸는 힐링여행

사천바다케이블카

